

은행

기술신용평가(TCB) 대출 확대 지속 전망

비중확대 (유지)

김수현 ☎ 02) 3772-1515
✉ sh.kim@shinhan.com

염종선 ☎ 02) 3772-1531
✉ jongseon@shinhan.com

TCB(Technology Credit Bureau): 기술신용평가. 기업이 보유한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 평가하여 기술신용등급(신용등급+기술등급)을 산출하여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 2019년 상반기 TCB 대출 잔액 182조원, +23.7% YoY 증가
- ◆ 건전성 측면에서 선점이 중요 / TCB 당분간 증가 추세 유지 전망
- ◆ TCB 관련 업체 수혜 지속-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2019년 상반기 TCB 대출 잔액 182조원, +23.7% YoY 증가

1H19 기술신용평가 대출(TCB) 규모는 182조원, +23.7% YoY 증가했다. 이 중 4대 시중은행의 상반기 TCB 대출 규모는 96.4조원(+27.3%)으로 전체 TCB 성장률을 상회했다. 국민은행이 18년부터 신한은행을 추월하며 가장 많은 26.4조원(+24.1% YoY)을 취급했다. TCB는 소위 '비외감 여신'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니치 마켓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가계 대출 규제 및 중소/소호 대출 시장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새로운 성장 대안으로 떠올랐다.

TCB 당분간 증가 추세 유지 전망 / 건전성 측면에서 선점이 중요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도 '혁신금융'과 '기술 중심의 여신심사 체계 개편' 등을 강조하는 만큼 6월에 일부 특수 은행 위주로 주춤했던 TCB는 하반기 재차 확대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2020년 예대율 규제 도입과 가계 대출 규제(DSR)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은행들의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이러한 신규 시장은 기술 평가 능력 뿐만 아니라 우량 차주 선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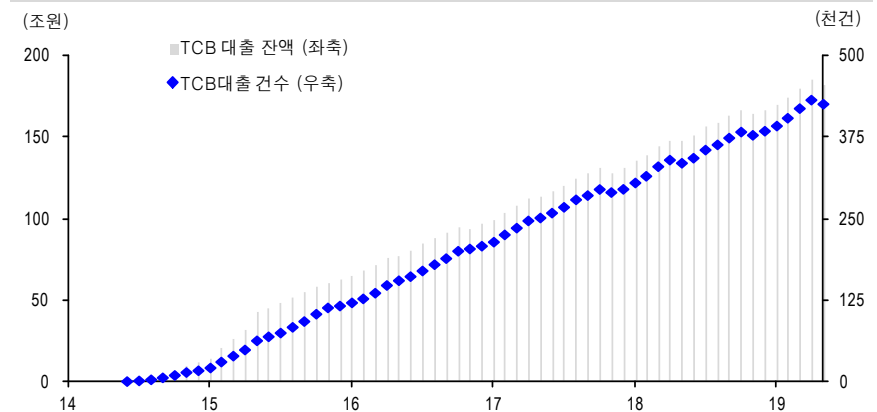
TCB 관련 업체 수혜 지속-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기술성 평가에 기반한 여신 관행이 강조되는 만큼 은행에게 기술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들의 수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다만 은행들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인력 및 시스템 구축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리스크 요인이다.

TCB 관련 종목

종목명	투자 의견	현재주가 (9월 2일, 원)	목표 주가 (원)	상승 여력 (%)
NICE평가정보 (030190)	매수	13,550	19,000	40.2
이크레더블 (092130)	N/R	18,000	-	-
나이스디앤비 (130580)	N/R	8,040	-	-

TCB 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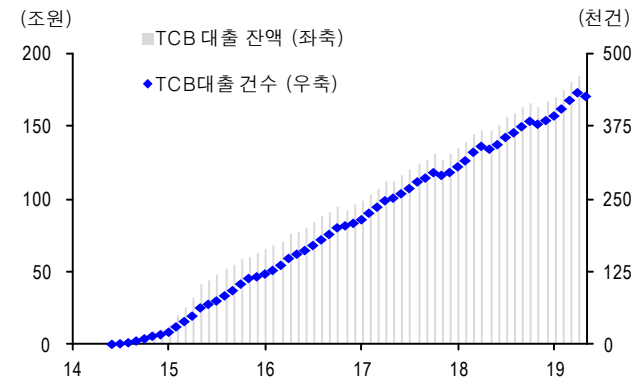


자료: 은행 연합회, 신한금융투자

2019년 상반기 TCB 대출 잔액 182조원, +23.7% YoY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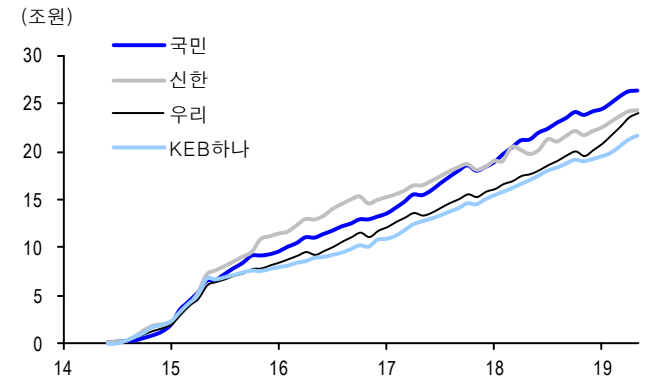
1H19 기술 신용대출(TCB) 규모는 182조원, +23.7% YoY 증가했다. 이 중 4대 시중은행의 상반기 TCB 규모는 96.4조원(+27.3%)으로 전체 TCB 성장률을 상회했다. 국민은행이 18년부터 신한은행을 추월하며 가장 많은 26.4조원(+24.1% YoY)을 취급했다. TCB는 소위 '비외감 여신'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니치 마켓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가계 대출 규제 및 중소/소호 대출 시장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새로운 성장 대안으로 떠올랐다.

은행별 TCB 대출 잔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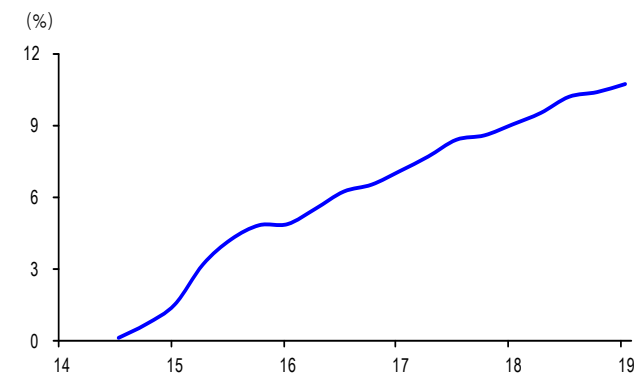
자료: 은행연합회, 신한금융투자

시중 은행 TCB 대출 잔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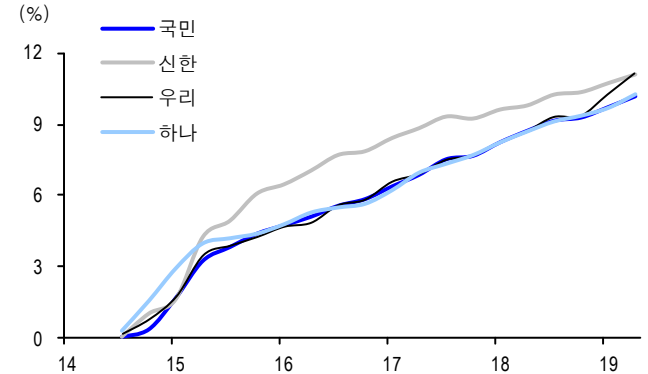
자료: 은행연합회, 신한금융투자

은행권 전체 TCB 대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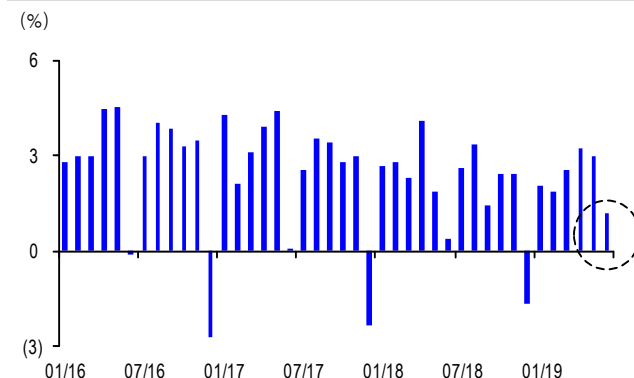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은행연합회, 신한금융투자

시중 은행 TCB 대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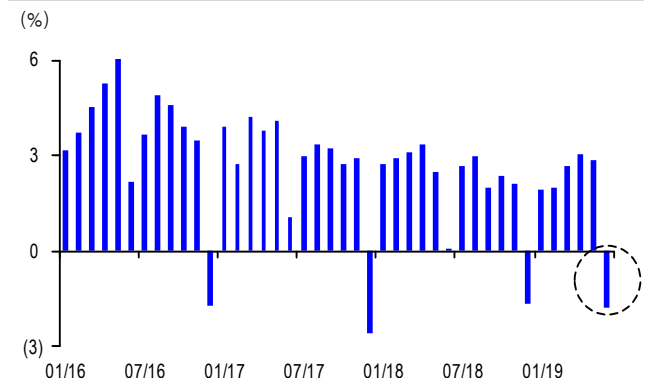
자료: 각 사,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한금융투자

시중 은행 TCB 대출 월별 MoM 증가율



자료: 은행연합회, 신한금융투자

은행권 전체 TCB 대출 월별 MoM 증가율



자료: 은행연합회, 신한금융투자

TCB 당분간 증가 추세 유지 전망/ 건전성 측면에서 선점이 중요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도 '혁신금융'과 '기술 중심의 여신심사 체계 개편' 등을 강조하는 만큼 6월에 일부 특수 은행 위주로 주춤했던 TCB는 하반기 재차 확대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2020년 예대율 규제 도입과 가계 대출 규제(DSR)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은행들의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이러한 신규 시장은 기술 평가 능력 뿐만 아니라 우량 차주 선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계 대출 및 新 예대율 규제

예대율 규제

■ 예대율 산정방식 개편

$$\frac{(\text{가계대출금} \times 1.15) + (\text{기업대출금} \times 0.85) + (\text{SOHO 대출금} \times 1)}{\text{원화에수금} + \text{원화에수금} \times 0.01 (\text{CD})} \leq 100\%$$

DSR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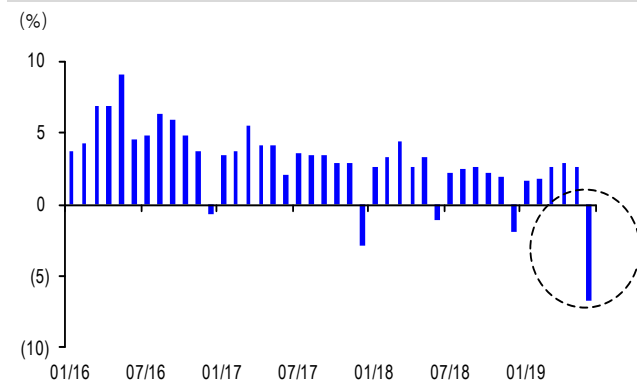
■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frac{\text{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text{연간소득}}$$

	DSR 70% 초과 대출 비중	DSR 90% 초과 대출 비중
시중은행	15% 이내	10% 이내
지방은행	30% 이내	25% 이내
특수은행	25% 이내	20%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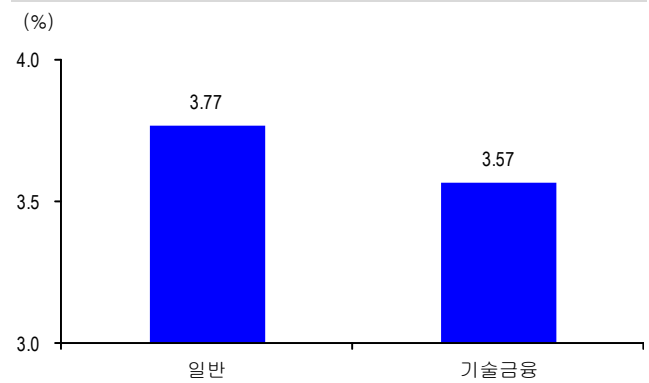
자료: 신한금융투자

특수은행 TCB 대출 월별 MoM 증가율



자료: 은행연합회, 신한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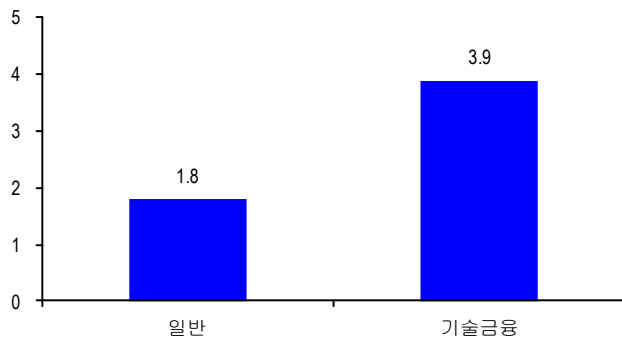
기술금융 대출과 일반 중기 대출 금리 비교 (18년 말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기술금융 대출과 일반 중기 대출 한도 비교 (18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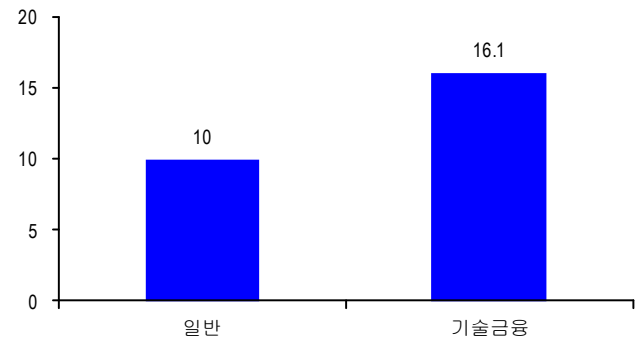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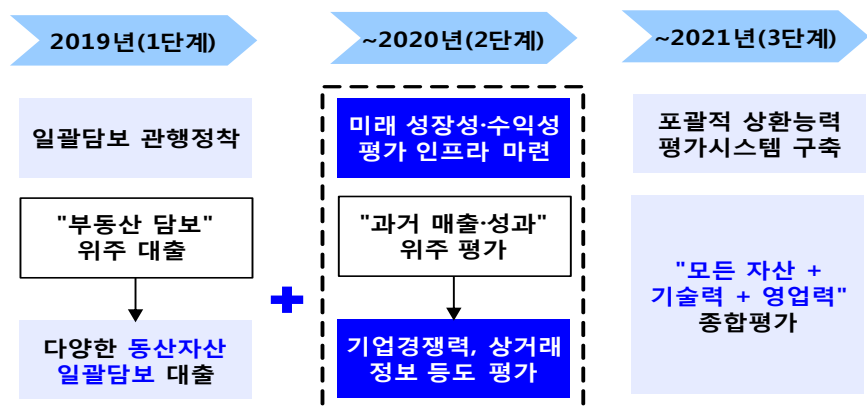
순수신용대출 비중 (18년 말 기준)

(%)



자료: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정부 혁신금융 추진 방향 - 기업여신시스템 전면 혁신



자료: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TCB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 요소
	평가 지표	배점	
정량평가 (80점)	1. 공급 규모	20.0	- 대출액, 차주 수 증가
	2. 기술기업지원	45.0	- 신용대출 비중, 초기 기업 비중, 우수 기술기업 비중 등
	3. 기술기반 투자 확대	15.0	- 기술금융 투자 증가
정성평가 (20점)	4. 지원 역량	20.0	- 기술금융 역량(인력·조직), 리스크 관리 체계, 기술력 반영 시스템 구축 정도 등

자료: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TCB 관련 업체 수혜 지속-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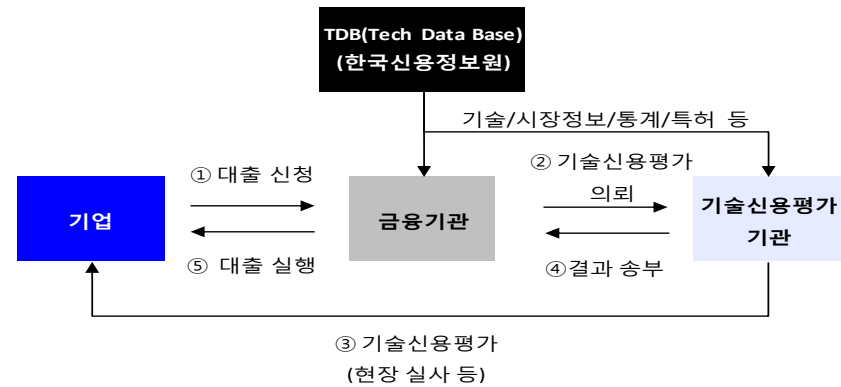
기술성 평가에 기반한 여신 관행이 강조되는 만큼 은행에게 기술신용 평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들의 수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다만 은행들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인력 및 시스템 구축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리스크 요인이다. 시장 점유율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업체간 대동소이하거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업체로는 NICE평가정보(030190), 이크레더블(092130), 및 나이스디앤비(130580)이 있다.

TCB 업체들 밸류에이션 테이블

구분	연도	NICE평가정보 030190 KQ	이크레더블 092130 KQ	나이스디앤비 130580 KQ
매출액 (십억원)	2018	383.8	37.2	52.0
	2019F	418.0	40.6	72.0
	2020F	442.1	44.3	78.9
영업이익 (십억원)	2018	48.6	15.3	10.4
	2019F	55.9	16.6	11.9
	2020F	65.9	18.4	13.1
세전이익 (십억원)	2018	50.6	16.1	11.6
	2019F	57.6	17.4	12.6
	2020F	67.5	19.2	13.6
순이익 (십억원)	2018	38.3	12.5	9.3
	2019F	42.6	13.5	10.4
	2020F	50.1	14.9	11.5
EPS (원)	2018	631	1,040	605
	2019F	701	1,123	673
	2020F	825	1,239	746
BPS (원)	2018	3,267	4,251	2,935
	2019F	3,536	4,449	3,529
	2020F	4,046	4,978	4,057
ROE (%)	2018	20.8	27.5	22.3
	2019F	20.6	26.6	21.0
	2020F	21.8	26.3	19.8
ROA (%)	2018	15.3	21.6	18.0
	2019F	14.8	22.8	16.2
	2020F	15.6	22.9	15.3
PER (배)	2018	17.1	16.2	11.8
	2019F	19.2	16.0	11.9
	2020F	17.5	14.5	10.8
PBR (배)	2018	3.3	4.2	2.4
	2019F	3.7	4.0	2.3
	2020F	3.2	3.6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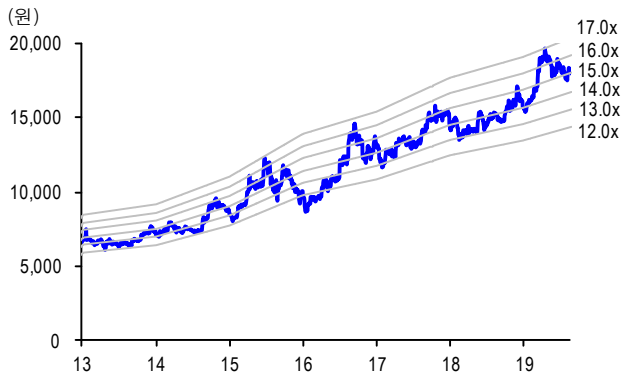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추정

기술신용평가 대출 구조



자료: 신한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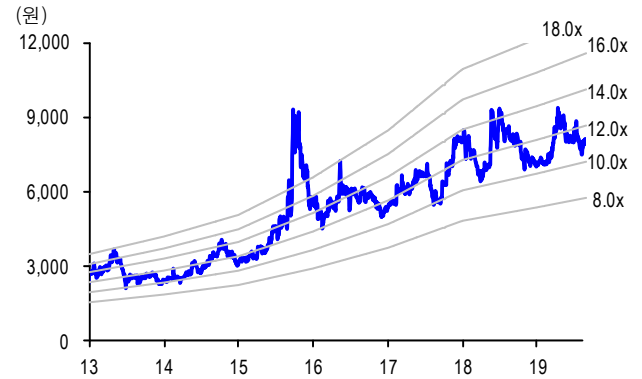
이크레더블 PER 밴드 차트



자료: 신한금융투자

주: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

나이스디앤비 PER 밴드 차트



자료: 신한금융투자

주: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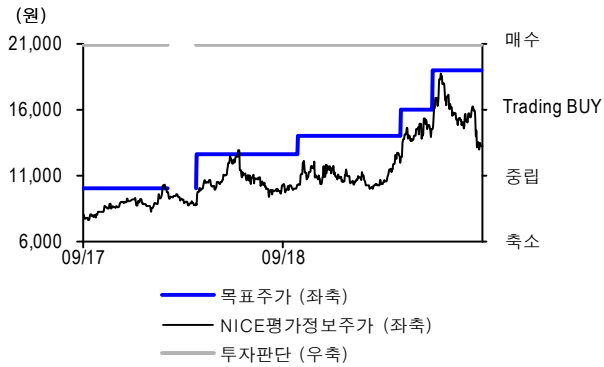
NICE평가정보 PER 밴드 차트



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NICE평가정보 (030190)



일자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원)	괴리율 (%)	
			평균	최고/최저
2017-04-13	매수	10,000	(14.2)	3.0
2018-02-06		커버리지제외	-	-
2018-03-29	매수	10,000	-	-
2018-03-30	매수	12,600	(16.1)	2.4
2018-10-01		6개월경과	-	-
2018-10-01	매수	14,000	(21.6)	(9.3)
2019-04-02		6개월경과	(12.1)	(10.7)
2019-04-07	매수	16,000	(10.9)	(4.4)
2019-06-04	매수	19,000	-	-

주: 목표주가 괴리율 산출 기간은 6개월 기준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 김수현, 염종선)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체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

종류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매수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이상	비중확대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매수 비중이 높을 경우		
Trading BUY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10%	중립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립적일 경우		
중립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20%	축소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Reduce가 우세한 경우		
축소	향후 6개월 수익률이 -20% 이하				

신한금융투자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19년 8월 30일 기준)

매수 (매수)	97.67%	Trading BUY (중립)	0.47%	중립 (중립)	1.86%	축소 (매도)	0%
---------	--------	------------------	-------	---------	-------	---------	----